

3·4

발행일 : 2006. 04. 01

통권 18호 2006 March/April VOL-18



우리네

www.uriseed.com

발행인 : 박광명 발행처 : 우리꽃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7타워 1302호 TEL : 02)6300-2080~1 FAX : 02)6300-2082



**선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과
안정감은 모든 분위기를 우선한다.**

Balance of Landscape Design - 언제 ②



우리의 다락논에
황금색의 배너 보
리가 악을 때죽이
면 이보다 평화로
고 화려함이 과
연 있을까 하는 생
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다락논
을 경지정리를 하
여 네모반듯하게
논의 배가 익는
풍경은 다락논의
그것과는 사뭇 다

르다. 물론, 넓은 평야지의 잘 정돈된 풍경은 또 다른 경관
적 아름다움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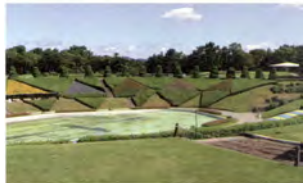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의 조경현장은 대부분 제한적인 공간에서
연출해야 하며 그 공간이 시야에 들어오는 경우는 아주 넓
은 공원이거나 겨우 몇 천평 내지는 몇 만평정도이다.

그런데 제한된 공간에서 조경을 할 때 선이 가져다주는
힘은 무엇일까? 특히, 식물의 식재라인에 있어 선으로 표
현되는 일상적인 공간개념은 어떻게 표현되고 그 효과는
어떻게? 필자는 선을 매우 중시하는 스타일의 식재를 꿈꾼
다. 건물과 연결되거나 하늘의 풍자선과 연결되거나 연못
의 구조물, 도로 선, 그리고 울프장의 그린 혹은 커어웨이
선, 정원 내적인 선까지 현장의 바뀔 수 없는 구조를 새로
게 조성하는 조경 라인과 어떻게 연결 하거나 더욱 돋보이
게 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을 가진다. 때문에 설계상의
라인으로만 그 현장의 여건을 파악하기란 매우 곤란한 경
우가 많다. 따라서 현장을 방문하여 현실감과 벗어나지 않
는 선에서 골질 즉흥적인 제안을 하곤 하는데 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 수정이 되기도 한다. 그
러면 식재라인으로 잘 표현되는 현장은 어떤 모습일 것
일까? 일반적으로 하나의 식물종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식재
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이 확정한 경우에 많
이 이용하거나 도로변이나 주차 여기에 포함이 된다. 다른
식물을 선택하여 만개시에는 매우 화려하고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으나 꽃이 없는 시기의 단조로움에 오히려 몇
종을 혼합해서 식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혹
은 무늬종을 이용하거나 가우라, 속근코스모스, 흰가루 내
병성인 장기 개화형 후룩스 등은 거의 연중 감상할 수 있

어 좋다. 골프장 등 대형의 연못 라인을 살펴줄 수 있는
식재라인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간혹 어떤골프장은 연못
전체를 둘러싸 식물을 식재한 곳이 있거나 어떤 연못
은 아예 아무것도 심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연못이 시원함의 상징인데 답답한 느낌이 너무 강하고 후
자의 경우는 너무 밋밋하여 좋지 못하다. 많은 골프장의
경우 노랑꽃참호, 부처꽃, 부들, 물억새 등으로 식재를 하
지만 선이 강조되기보다는 식물 그 자체의 형태만을 열두
에 둔 식재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경우는 산만하여
효과적이지 못하다. 연못의 식재라인은 구조물 혹은 식물
의 배치에 있어 각각의 식재라인과 포인트로 더욱 아름다
운 연못의 선을 살릴 수 있다.

연못라인의 식재패턴은 각각의 식물소재를 반복하는 형태
의 식재로 선을 잡아주고 주요 전망포인트에서 앞쪽은 식
재를 줄이고 측면과 뒤쪽의 식재를 늘리는 것도 유별한 일
이다. 또한 연이나 수련, 큰고랭이 등의 수경식물과도 연계
된 라인을 생각하는 것도 좋다. 일반적인 가정의 정원이나
공원의 잔디밭과 회단의 식재라인으로는 우리의 경우 주로
경계식 혹은 경계목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일차원의 식
재라인이 많았는데 이는 지양해야할 것이다. 자연스러움이
없고 인공적이며 투박함 때문이다. 또 이 경우 꽃이 화려
하게 핀 계절에는 좀 덜하지만 꽃이 적게 피었거나 없는
계절엔 정원이 오히
려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잔디밭에 가장 잘 어
울리는 식재라인은 S
선, 혹은 약간의 미운
드를 가미한 S선의
식재라인이 가장 인
정감 있고 자연스럽
다. 물론 정사각형의
정원이나 아주 좁고
된 형태의 정원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차원의 라인을
할 수 밖에 없는
데 이때는 혼합식재
에 의하거나 같은
품목이라도 화색이



나 식물의 키를 달리 함으로써 단순함을 피할 수 있다.
식재라인은 다시 말하지만 한정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특히 인공적이지만 사물을 편안
하게 하고 자연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핵심적 요소 이
다. 

contents

- 중지포로 23면
- 대표적 조경식물 4면
- 수경 수변식물의 용바름 이해 5면
- 현장리포트 6면
- 현장히트종목 7,8,9면
- Small Garden Project 10면
- 조경지식종합선 11면
- 이 달의 식재 추천종목 12,13면
- 취미로 기르는 야생화 14면
- 지상종자 15면
- 한국적 식물원 16면



골프장, 아파트, 도로가의 새로운 경관연출~! 우리법면혼합종자시리즈*

해를 더할수록 더욱 안정, 화려해지는 전천후 혼합 종자 시스템

“우리꽃”이 자체기술로 개발한 혼합종자시스템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이제 넓은 면적의 녹화시스템의 표준이 되고 있다.

2001년부터 시판에 들어가 우여곡절 끝에 2003년 파인벨리골프장의 전종 파종을 시작으로 금호베스트빌현장, 향린단지, 인성아파트현장 등 해를 거듭할수록 안정되고 화려함을 주어 기존의 수입종을 100% 대체는 물론 이제는 수입종이 값싼 우리법면시리즈로 둔갑되어 시장에 유통되기도 하는 우리법면 신드롬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 시공한 현장만 하더라도 중부C.C, 태원C.C, 이포C.C, 뉴스프링빌C.C, 춘천C.C, 우리랜드, 강원랜드 등 이른 현장은 물론 전국적으로 고른 공감을 보이고 있고 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전폭적인 격려와 감사의 지

를 받고 있다. 특히 기존의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세계최초로 지표종이면서 빠른 보양안정화를 유도하는 무늬질경이의 혼합으로 유사종과는 구별되게 되어 “우리법면시리즈”를 통해 낸 가짜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우리법면시리즈의 특징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표준이 되었지만 우선 빠른 효과에 있다. 이른 봄 이후에 시공한 현장에 빠르면 45일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장마기에 꽃이 주춤하였다가 장마가 지나면서 가을로 접어들 시기에 다시 화려한 꽃을 피워내는가 하면 2년째 되는 봄부터는 약 15일 주기로 화색을 바꾸어 가며 연속개화 하는 우리법면시리즈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에 모두를 감탄하게 된다. 특히 3호의 경우는 우리토종이 추가되어 혼합된 제품인데 2년차부터는 발개미취, 부처꽃, 마타

리 등이 자연의미를 한껏 풍내고 4호의 경우는 우리토종과 외국의 도입종을 적절히 혼합한 제품으로 화려함을 더욱 강조한 제품이다.

제품으로 이렇게 많은 면적과 현장에 뿌려진 종자는 물론 여 양잔디나 싸리 등 순수녹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방종자를 제외한 품목으로는 단연코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물론 가격 면에서도 비싼 만큼 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기도 하고 또한 유사종의 양산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장담할 수 있는것은 기타유사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제품의 특성을 1년만 지나보면 알게 될 것이다. 1kg당 140,000원 이하인 모든 가격은 가격으로 간주해도 될 것이다. 출고가격이 그 이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뿌려보면 무늬질경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파인벨리 클럽하우스 우리법면 4호 - 파인벨리 클럽하우스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법면으로 골프를 즐기시는데 맞는 고객들로부터 탄성을 자아내게하는 예인코스.



무늬질경이 : 우리법면시리즈의 전통을 가리키는데 2006년부터 무늬질경이 혼합.

가짜인지 아닌 진짜인지 구분가능하다.

이렇게 공개적인 발상은 그 만큼 우리법면시리즈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을 뿐만아니라 건축 유사품에 의한 피해접수사례가 종종발생하고 있어 주의 를 요하는 측면에서 가격과 무늬질경이의 혼합여 부를 공개하는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법면 시리즈의 단점과 관리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종자가 비싸다는 단점과 함께 꽃이 시기별 로 만개 후 연 2-3회정도 꽃대를 잘라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너무 아래까지 바삭 자르면 다음 꽃 필 식물에 개화기를 건너뛴다거나 다음개화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만개 후 종 자가 달리지 않게(만개 후 일시적으로 꽃이 지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보기 흉할 수 있으므로) 꽃대 의 외부분만 잘라주면 약 15일 후에 다른 종류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계속해서 꽃 을 피우게 되므로 적박지의 경우는 비료를 살포하 거나 혹은 너무 가뭄이 심한 곳은 일부 관수를 해 주면 더욱 더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잊지 말 것은 가장 저렴하게 가장 아름다운 경관 연출이 가능한 우리법면시리즈도 방치하면 좋은 경관과 꽃을 보여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우리법면 시리즈를 이용한 현장은 올해의 아름다움은 물론 내년 봄을 기다려도 좋을 것이 다.



파인벨리 인코스 18번홀 우측법면

스니무로 조성된 법면으로 임석의 지면에 마사로 표토층을 형성시킨것



2003년 6월 29일



2004년 5월2일



2004년 5월20일



2004년 6월3일



2005년 6월 5일

대표적 조경식물군(Genus)으로 본 분류학적 의미와 품종의 이해-⑥

Sedum속

세덤은 세계적으로 약 400여종이 존재하며 대체로 다육성의 줄기나 잎을 가진다. 때문에 건조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하며 근래에는 옥상조경의 중요한 소재로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품종이 많은만큼 잎과 꽃의 형태 등이 다양하여 잎이 삼각상인것과 거울에 단풍의 형태로 활동하는것 그리고 포복성인것과 직립성인것과 엽색이 블루색, 적색, 하얀색 등 다양하며 꽃색깔 또한 노란색, 흰색, 분홍색 등 품종에 따라 다양하다. 잎의 질감이나 엽색, 화색,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세덤만으로도 옥상을 조경해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세덤류는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물관리가 필요없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옥상조경은 물론 도로의 중앙분리대, 골프장의 임시인 등에 적용하면 좋으며 일반식물이 건조피해로 인해 생육이 불량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습기에 약하므로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서 물빠짐이 좋은 곳을 선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생종과 도입종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자생종으로는 대표적으로 기린초, 애기기린초, 섬기린초, 큰평야비름, 돌나물, 바위재송화, 땅채송화 등이 대표적인 수종이고 도입종은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이름을 설명하는데 있어 화색을 위주로 통칭해서 불려지곤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본다. 예를 들어 같은 계통이고 분홍색꽃을 피우는 것을 일반적으로 분홍세덤이라고 명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인 품종을 살펴봐있을때 분홍꽃이 피는것만 같을 뿐이지 잎의 형태, 질감, 엽색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품종의 특성에 맞게 명명해야만 한데 재대로 그 특성에 맞게 활용되어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꽃은 약 30여품종의 세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큰평야비름 만추

(Sedum spectabile 'Brilliant')

직립형의 세덤으로 일반 큰평야비름에 비해 꽃이 더 조밀하고 화색이 진한 적색으로 매우 아름답다. 서리가 내린뒤에도 적색의 화수를 감상할 수 있으며 전체 수형과 모양이 뛰어나 최상의 조경소재로 활용가능하다.



다양한 세덤품종들

블루에기세덤, 백두산애기세덤, 무늬돌나물, 붉은애기평야비름, 비단세덤, 다랑쥐꼬리세덤, 애기세덤



단풍세덤

(Sedum spurius 'Fuldagut')

잎이 사계절 단풍이 든 채로 유지되는 품종으로 붉게 물든 잎은 어둠보다도 아름답다. 때문에 세덤으로 연출시 단풍세덤은 다른세덤과 어울려 극대의 효과를 내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적극 추천한다. 꽃은 6-7월에 분홍색으로 피며 포복성이고 겨울에도 상록을 유지하는 품종이다.



낙지다리세덤

(Sedum spurius 'Purple Carpet')

꽃은 6-7월에 분홍색으로 피고 포복성이며 잎의 형태가 낙지다리와 유사하다하여 붙었다. 봄,여름에는 엽색이 진녹색을 띠다가 가을에는 붉게 단풍을 유지하는 품종으로 계절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겨울에 상록을 유지한다.

청풍세덤

(Sedum spurius 'Green Mantle')

대부분의 특성은 낙지다리세덤과 유사하나 봄, 여름에는 엽색이 시원한 그린색을 유지하다 마한가지로 가을에는 붉게 단풍이 들어 계절감을 느끼게 한다.

블루세덤

(Sedum reflexum 'Blue Spruce')

상록성으로 사계절 블루톤의 엽색을 유지하는데 잎의 질감이 매우 좋아 다른세덤과 어울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꽃은 6-7월에 노란색으로 피며 반포복성의 형태를 띤다.

금강애기기린초

(Sedum middendorffianum 'Gumkang')

우리꽃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애기기린초와 섬기린초의 혼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치 그린방석을 연상시킴과 조밀한 매트를 이루는 초형으로 지피력이 매우 빠르다. 봄에 새순이 나올때 매우 앙증맞으며 여름의 돌꽃색과 꽃이 지고난뒤의 적색의 종자꼬투리도 매우 아름답다.



수중,수변식물의 올바른 이해 연재②

수변의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무늬종 “무늬어성초”



어성초(Houttuynia cordata)는 삼백초과의 다년생 식물로 그늘진 산속의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 약초로 다양하게 쓰여지기도 하여 약 모미라고도 불려지기도 한다. 아시아 동남부와

특히 일본은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하며 잎에서 심한 비린내가 난다고 하여 어성초라 부른다. 어성초는 예부터 지금까지 이뇨제, 구충제 등 다양하게 약용으로 쓰여지고 있고 강력한 해독작용과 살균작용으로 30cm 이내에는 벌레가 접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지금은 이용제품등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여 그 쓰임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무늬 종인 무늬어성초(Houttuynia cordata 'Chameleon')는 매우 특이하게 무늬가 들어간 잎에 심형의 일가장자리와 적색과 그안쪽으로 노란색의 무늬가 부정부호로 잡혀있어 잎에 따라 적

색과 노란색 무늬의 비율이 서로 다르기도 하다. 이 특이한 무늬는 매우 이색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꽃은 흰색으로 6월경 피고 키는 약 20-50cm정도 지라며 땅속줄기로 번식한다.



음양지 가지치 않고 잘 자라며 특히 습지를 좋아 하여 수변이나 얕은 물속에도 식재가 가능하다.

좋은 무늬를 가지고 있어 풍드주변에 다른식물과 어울려 포인트 식물로 이용해도 좋고 수심5cm이내의 물속에서도 생육이 가능하여 풍드

내 수심이 얕은곳에 심거나 하천변등의 물가 또는 물이 조금씩 넘쳐흐를 토양에 물에 잘 흡수되는 토양에 식재해 놓으면 잎의 색깔이 좋아 단일 군락으로도 보기 좋고 다른 식물과도 잘 조화를 이루어 특별한 수변 경관을 연출해낸다.

새로운 수변식물 소재로서의 그 이용가치가 많고 일반적으로 무늬종들이 생육이 늦는 반면 무늬어성초는 생육이 빠르고 일반지에서도 잘 자라며 습지에서도 조경소재로서의 이용이 가능하다.

번식은 봄에 분주를 하거나 줄기 지하경의 발달로 맹아력이 좋아 경관을 이용하여 대량 증식할 수 있다.

“잎의 색깔이 좋아 단일 군락으로도 보기 좋고 다른 식물과도 잘 조화를 이루어 특별한 수변 경관을 연출해낸다.”



건습지 어디에나 잘 적응하는 “해변무늬실사초”



혹은 일반지의 물기가 많은 토양을 매우 좋아하며 지하경을 통해서 광합성 반식하는 것을 보아서 수변 혹은 해변 식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키는 약 40-50cm정도 지라고 잎의 형태는 아치형을 이루며 매우 넓어 휘어져서 잎의 끝이 4-5cm 정도가 된다. 잎은 매우 가늘고 흰색과 녹색의 무늬가



4-5월에 피는 꽃

가온의 우리넷 무늬종시리즈에서 소개했던 해변무늬실사초(Carex riparia 'Variegata')를 다시 한번 그라스 스케이프 코너에서 다루고자 한다.

사초류가 다양하여 건조지, 습지, 염지, 양지 등 어디에도 잘 적응한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습지에 잘 적응한 품종들이 많이 존재한다. 해변무늬실사초도 그 생태적특성을 살펴보면 어디에서도 잘 적응하지만 특히 모래가 섞인

잘 조화를 이룬다. 때로는 이른봄에 간혹 일전차가 하얗게 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꽃은 5-6월에 피고 잎의 길이가 매우 짧아나뭇잎은 지하경을 땀어 포기를 넓혀가는데 왕성하게 퍼져나가 다른식물과 혼식하면 불리하지만 기타 무늬종과 구분 혼식하면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연못수변에 군식을 하거나 흐르는 수변에 군식하면 대단히 아름답고 인공적인 계곡의 돌틈사이에 모래주머니 혹은 피트모스주머니 등을 잘 고정하고 식재하면 늘어지듯 물에 흐르는 잎을 보는 경관이 일품이며 발달한 뿌리는 토사유출을 방지해주기도 한다.

건습지를 가리지 않고 양지 및 음지장자리 음지에서 생육이 가능하므로 음지에서 적응이 가능하며 또한 그라스원을 조성할때에도 잎의 질감이 초형이 좋으므로 앞쪽이나 중간층에 배치하여 식재하면 다른 그라스와 잘 어울리며 좋은 경관을 연출시킨다.

새로운 건습지 무늬종 그라스인 해변무늬실사초는 그 적응 범위가 다양하여 그라스류의 유용한 소재로 적재적소에 활용되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장 리포트

도심속의 **사계절 정원연출** - “**광화문의 새로운 발견**”

네덜란드, 캐나다 등 외국을 나가기 되면 도심속의 거리 화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다. 어떤 곳을 가보게되면 마치 주택의 정원속을 와 있는듯한 느낌을 주는 곳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패턴도 다양하여 기본적으로 다양한 숙근초와 일년초를 가지고 조성하거나 또는 구조를 틀을 적절히 잘 이용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만큼 도심속의 화단하나하나에 세심한 배려를 하여 시민들이 꽃과 푸르름을 같이 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요 몇년사이 '우리꽃'이 다양한 우수한 신품종을 출시하고 혼합식재, 락가든, 우리법 먼시리즈 등을 적용하여 골프장, 정원주택, 대학교 등 곳곳에서는 이제는 다양한 패턴의 조경을 적용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거리화단은 어떠한가, 지자체의 노력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

만 그 내용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계절별로 매년 반복되는 1년생초화류의 식재나 벌개미취, 원추리 등 자생초화류 등을 군식하여 단조로움이 있고 관리가 잘 되지않아 제대로 생육이 불량한 경우도 볼 수 있다. 또한 단조로운 관목류의 식재가 보편화되어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반에 시공된 현장은 광화문우체국 앞 도로변 화단으로 서둘러가 시범적으로 새로운 형태로의 화단조성을 의뢰해 우리꽃에서 혼합식재를 이용, 시범 조성했다. 먼저 화단 하나의 면적은 약 5㎡정도로 작은 면적속에 도심속의 정원을 은 분위기 연출을 의도하면서 혼합식재를 하였다. 약30여 종의 소재를 이용하여 개량잔디, 상록잔디패랭이, 삼색조팝, 황금조팝, 개암후루스, 스텔라원추리, 숙근베베, 매발톱류, 알기밀라, 왕상록패랭이, 환금배초향, 은옥, 왜성아스타 등을 식재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게 하였고 무늬억새, 홍피, 골드밴드, 환금무늬대사초, 무늬여우꼬리그라스 등 그라스류와 황금종사철, 토니세라, 재주종송아 등 잎의 질감이 좋은 소재들을 곳곳에 식재하여 꽃들과 어울리게 하였다. 그리고 조성식을 놓고 그 주변에는 유카를 틀과 어울리게 배치하였고 전체적으로 그린키퍼를 깔아 겨울에도 상록성인 식물과 물로 인해 활랑하지 않게 조성되어있다. 봄 일찍 꽃을 보기위해서 수선화를 심어 주었고 그 뒤에 구근으로 튤립과

무스카리를 곳곳에 심어 화려함을 더욱 강조되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매우 고급스러우면서도 다양한 꽃이 만발하는 정원을 도심속에서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약 1개월후면 제대로 완성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도시녹화도 우수한 소재들을 바탕으로 혼합식재, 락가든 등 다양한 조경기법을 이용하여 인도를 걸어가면서 화사한 정원을 거니는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도록 조성되어지기를 바라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1. 봄일찍 꽃을 보기위해 수선, 무스카리 등 구근을 식재
2. 겨울에도 활랑함을 느끼기 위해 물로 인해 활랑하지 않게 조성되어있다.

업그레이드 고급소재
무늬종 시리즈 -12-라인, 경계를 위한 최고의 소재
“무늬맥문동”

우리나라조경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 지피소재를 뽑으려면 단연 맥문동(Liriope muscari)일 것이다. 특히 나무 아래 등지에 잘 적응하고 겨울에 상록이며 여름에 보라색꽃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사용하는 큰 이유종의 하나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맥문동은 실제로 조경용으로 재배한다기보다는 맥문동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 산지에서 봄에 모주만 남게두고 캐내어낸 채 사들여서 가식해두었다가 그해 판매를 하게 된다. 그러나 나무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대부분의 지피업체는 어쩔수 없이 구색충족으로 가져가려는 현실이다. 그리고 지피식물로서의 적용에서의 문제점은 천연일록색으로

로 대부분 음지에 맥문동을 너무 과다하게 설계하여 오히려 경관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게 하는 요인이 되는 소재로 전락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매우 중요한 소재인것만은 확실하다.

무늬맥문동(Liriope muscari 'Variegata')은 무늬종으로 이러한 단순함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잎가장자리에 무늬가 있고 아치형을 이루며 여름에 시원한 보라색꽃을 피운다. 대부분의 무늬종이 그러하듯이 반성이 늦고 추위에 약해 겨울의 차가운바람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봄에 가운이 올라가면 언제 그랬는지 색순이 새롭게 나온다. 잎의 무늬는 매우 주변을 밝게 해주어 경계나 라인을 줄때 최고의 소재로 활용가능하여 또한 관목과도 잘 어울리고 특히 정원의 바다 석재사이에 부분식재해주면 잘 어울린다. 또한 나무아래 또는 건조한 그늘에서도 잘자라 지피식물로 군식해주어도 잘자라고 일반 맥문동 사 이에 포인트로 식재 해 주어도 서로 잘 어울린다. 내열성도 뛰어나 해변가의 정원 등지에 심어도 잘 자란다.

가을에 꽃을 피는 식물과 또는 푸르른잎을 가진 식물들과 혼식을 하면 더욱 좋다. 반성은 주로 봄에 분수를 하게 되고 그 품종도 형태나 무늬에 따라서 'John Burch', 'Gold Banded', 'Silver Sunproof' 등 다양하다.

5월 무늬 연숙 개화하는 꽃이 큰 고급소재 “빅스타사계”

● 무늬종이 7~10cm(2~3인치) 크기의 꽃이 피고 보라색의 잎이 선다. (사계) ● 잎은, 분홍, 빨강, 보라색의 꽃이 혼합된 모양이 매우 아름답다. (사계) ● 꽃이 피는 시기는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이다. ● 종래의 맥문동에 비해 3~4배 더 높고, 더 많은 꽃을 피운다.

빅스타사계만의 장점

● 무늬종이 7~10cm(2~3인치) 크기의 꽃이 피고 보라색의 잎이 선다. (사계) ● 잎은, 분홍, 빨강, 보라색의 꽃이 혼합된 모양이 매우 아름답다. (사계) ● 꽃이 피는 시기는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이다. ● 종래의 맥문동에 비해 3~4배 더 높고, 더 많은 꽃을 피운다.

아름다운 매트형의 새로운 세대 “금강애기리초”

1. 섬기린초와 애기리초를 혼합한 듯한 특성
2. 조밀한 매트를 이루는 초형으로 빠른 지피력
3. 아름다운 노란꽃과 종자 꼬부리

구입문의) 02) 6300-2080~1



현장히트상품중

2006년도 새롭게 선보이는 신품종
“**상록잔디패랭이**”

1.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2. 잔디패랭이보다 더 크고 화려한 꽃방석
3. 여름에도 질투하지않는 상록성의 깊은 질감이 매우 뛰어나다.
4. 군식하거나 라인식물, 혼합식재식 앞쪽 식물, 상조경, 돌벽식재등에 이용하면 좋다.

시원하고 아름다운 여름의 귀공자
“**리아트리스**”

1. 개화가 길고 초형이 아름다운 신조경식물
2. 잎과 꽃이 아름다운 장기 개화형

일과 꽃 최고의 상록 패랭이 “**왕상록패랭이**”

1. 볼루색의 깊은 일반 상록패랭이와 비교가 안될정도로 질감이 뛰어나다.
2. 라인을 형성하거나 건조지 식재를 위한 최상의 품종군
3. 화색이 다양하여 구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서로 어울려 식재해도 좋다.
4. 상록패랭이의 단점인 여름에 질무르는 현상이 전혀 없는 신개념의 상록패랭이.

꽃잔디 “**레드아이**”

인기정점



1. 빨강색의 화색은 매우 강렬하고 화려하다.
2. 생육이 강건하고 자람이 빠르다.
3. 군식하거나 옥상, 락가든으로 잘 어울리는 소재
4. 개량꽃잔디 등과 혼식해도 잘 어울려 효과를 더욱 증진 시킨다.

최고의 옥벽차폐용소재 “**눈물은썬레**”

위에서 아래로 빨강의 식물폭포

1. 국내 땅썬레를 개량한 최상의 향토 수종
2. 자람이 빨라 옥벽, 암사면, 울타리녹화 1년이면 OK!
3. 절간이 짧고 마디마다 꽃대형성, 온통 붉은 바다
4. 중앙분리대 등에도 좋다.

무늬가 아름다운 인동
무늬인동
올타리녹화를 위한 신소재



1.이색적인 잎과 아름다운 꽃이 잘 조화를 이루는
인동 신종
2.기존의 인동과 변갈아 식재해도 좋다.

화색	하양	화기	6-7월
용도	양지	초장	달글형

정열적인 아름다움
도나다
새로운 개념의 화단,도로용 지피식물



1.매우 정열적인 화려함을 선사
2.잎의 향기가 뛰어나며 생육이 강건하다.

화색	빨강	화기	6-8월
용도	양지	초장	50-60cm

화려함의 결정판
메카나 매발톱
봄의 화신, 화려함의 최상



1.매우 아름다운 매발톱으로 화색이 다양하다.
2.공원,골프장,전원주택 등 최상의 봄식물

화색	혼합	화기	4-5월
용도	양지	초장	40-50cm

꽃과 잎의 질감이 뛰어난
물장미
라가든에 잘 어울리는 소재



1.화색이 다양하며 화두색의 잎은 질감이 뛰어나다.
2.골프장,도로변,식물원 등에 군식,혼식시
이용하면 좋다.

화색	혼합	화기	4-5월
용도	양지	초장	15-20cm

블루색의 고급 조경소재
후룩스 파라다이스
아름다운 장기개화형



1.보라색의 아름다운 꽃이 연속개화.
2.다품종과의 혼색으로도 아름다운 경관연출

화색	보라	화기	6-10월
용도	양지	초장	70-80cm

화색이 보라색으로 아름다운
불가리아 할미꽃
봄을 알리는 새로운 할미꽃



1.생육이 좋은 최상의 봄꽃
2.분화율으로도 인기

화색	보라	화기	4월
용도	양지	초장	15-20cm

나비들의 환호한 전지
가우라
여름부터 가을까지 장기개화



1.아름다운 꽃은 낮고 있는 나비를 연상
2.생육이 강해 어디에 적용해도 잘 자람

화색	빨강	화기	6-10월
용도	양지	초장	70-80cm

잎의 질감이 매우 뛰어난
은속
은회색의 뛰어난 지피력



1.지피력이 매우 뛰어나다.
2.잎의 질감이 뛰어나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화색	노랑	화기	5-6월
용도	양지	초장	5-10cm

보통성으로 지피력이 뛰어난
음지황금
잎과 꽃이 뛰어난 최고의 음양지용 소재



1.흔적의 새로운 대안식물
2.장기개화하는 노랑색의 꽃이 절경

화색	노랑	화기	5-6월
용도	양지, 음지	초장	10cm

아름다운 초형용 가진
억새 '그린라이트'
전녹색의 포인트 식물



1.안정되고 고급스런 분위기 연출
2.군식, 열식하거나 포인트 식물로 이용하면 좋다.

화색	갈색	화기	10-12월
용도	양지	초장	100-120cm

우렁의 함초종 복원
흰부꽃
화색이 깨끗한 토종의 아름다운



1.노랑색이 섞인 흰색의 꽃잎은 매우 화려하다.
2.생육이 강해 수변지 및 어떤 장소에도 좋다.

화색	하양	화기	5-6월
용도	양지	초장	50-70cm

완종있는 꽃과 조밀한 잎
구름나도부추
아담한 초형의 가을 상록 소재



1.동간꽃과 보드라운 잎의 조화
2.익가든 및 옥상조경에 좋다.

화색	하양	화기	4-5월
용도	양지	초장	10-15cm

잎이 큰 대형 아주가
왕아주가
질감이 좋고 피복력이 최상



1.잎이 두껍고 광택이 있어 질감이 매우 뛰어나다.
2.잎이 대형이라 식재후 빠른 피복을 볼 수 있다.

화색	보라	화기	5-6월
용도	양지, 음지	초장	10-15cm

아름다운 초형용 가진
억새 '모닝라이트'
고급무늬억새



1.안정되고 고급스런 분위기 연출
2.군식, 열식하거나 포인트 식물로 이용하면 좋다.

화색	갈색	화기	10-12월
용도	양지	초장	100-120cm

친생의 아름다운
아이슬란드보베
대면적의 최고 이벤트



1.꽃이 매우 아름답고 서정적이다.
2.공원, 식물원 등에 군식 또는 포인트식물로
좋다

화색	혼합	화기	4-5월
용도	양지	초장	25-30cm

잎의 질감이 뛰어난 메트형
패랭이 '핑퐁'
라가든용 패랭이



1.잎이 매우 조밀하며 질감이 뛰어나다.
2.초형이 메트형으로 라가든에 이용하면 매우 좋다.

화색	분홍	화기	5-6월
용도	양지	초장	5cm

잎이 작고 조밀한 아주가
애기아주가
음지나 혹은 라인식물로 좋은



1.기존 아주가의 단점인 혼식시 다른 식물과의
반비가 없다.
2.잎이 좋아 라인식물로 이용해도 좋다.

화색	보라	화기	5-6월
용도	양지, 음지	초장	10cm

잎이 조밀하고 포기모양이 좋은
알기밀라
어디에서 적용가능한 고급조경용



1.화단을, 띠가든, 라인식물로 어디에 사용해도 좋다.
2.스프레이형의 노란꽃은 절화용으로도 한성명용

화색	노랑	화기	5-6월
용도	양지, 반음지	초장	60-90cm

강렬한 아름다운
오리엔탈보베
대형의 꽃이 주는 화려함



1.꽃이 매우 크고 화려하다.
2.공원, 식물원 등에 군식 또는 포인트식물로
좋다

화색	혼합	화기	4-5월
용도	양지	초장	50-60cm

로제트형의 잎과 꽃이 모두 좋은
큰꽃장대나물
상록의 새로운 띠가든소재



1.이른봄 많음은 꽃을 선사
2.인조예 상록 육상조경, 띠가든용으로도 좋다.

화색	분홍	화기	4-5월
용도	양지	초장	10-15cm

대형 모인트 식물
무늬억새
새로운 지피 조경소재



1.독립의 볼륨있는 초장가능
2.무늬가 선명하고 아름다운 대형종

화색	갈색	화기	9-11월
용도	양지	초장	150-200cm

새로운 습지 대안 식물
하롱물사초
내한성이 강한 수중사초



1.분무새 잎은 절감이 뛰어나다.
2.습지조성시 군식하면 좋다.

화색	노랑	화기	5월
용도	양지,수중	초장	70-80cm

초형용의 다화성 꽃무리
스타치스
잎과 꽃이 모두 좋은 소재



1.키가 작고 직립의 꽃무리가 아름답다.
2.포기상장이 빠르고 많은 꽃대를 형성한다.

화색	보라	화기	7-8월
용도	양지	초장	40-50cm

황금색캐트
황금리시마리아
황금색의 뛰어난 지피력



1.황금색의 조밀한 잎은 뛰어난 경관을 연출한다.
2.반음지의 지피식물로 사용해도 좋다.

화색	노랑	화기	5-6월
용도	양지,음지,수변	초장	5-10cm

잎의 무늬가 뛰어난
무늬금계국
생육이 강한 고급 정원용



1.키가 작은 무늬종 금계국
2.잎의 무늬가 좋아 포인트식물로 좋다.

화색	노랑	화기	5-8월
용도	양지	초장	40-50cm

신개념의 수변식물
무늬글리세리아
연못주변의 새로운 대안식물



1.무늬가 매우 아름답다.
2.키가 적당히 커 최상의 조경용 수변식물

화색	무늬종	화기	5월
용도	양지,반음지,수변	초장	60-90cm

잎의 질감이 좋고 노랑이 좋은
에버그린아이비
습지의 새로운 대안



1.잎이 아주 조밀하게 자라며 광택이 좋다.
2.수변과 피복을 비롯하여 실내조경에도 유리
하면 좋다.

화색	보라	화기	7-8월
용도	양지	초장	40-50cm

부족한 초대형 초본식물의 필진
칸나 파초
키 2.5-3m의 대형식물



1.독립수로 장가 등의 식재로 안정감 회복
2.반음지의 지피식물로 사용해도 좋다.

화색	노랑	화기	5-6월
용도	양지,음지,수변	초장	5-10cm

장기개화형 금계국
금계국 왜성사계
키작은 화단용 고급소재



1.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2.생육이 강건하여 도로변, 정원용으로 좋다.

화색	노랑	화기	5-10월
용도	양지	초장	40-50cm

대형의 수중식물
무늬글리세리아
초형이 아름다운 무늬종



1.독립적이고 안정된 초형의 수중식물
2.연못조성시 다른식물과 잘 어울려 포인트식물로
활용하면 좋다.

화색	무늬종	화기	7-8월
용도	양지	초장	170-200cm

실타래같은 수변의 무늬종
해변무늬실사초
건·습지 등 어디에서나 생육이 가능한



1.잎의 형태나 질감이 매우 뛰어나다.
2.생육이 강건하고 연못과 인공계곡 등에 이용
하면 좋다.

화색	무늬종	화기	7-8월
용도	양지,음지,수변	초장	30-40cm

봄,봄여미취와 절려도 좋다.
구름꽃발 비비
다양한 화색의 꽃무리



1.꽃에 피는 아름다운 국화
2.전조에도 강한 최고의 화단식물

화색	보라	화기	4-5월
용도	양지	초장	15-20cm

장기개화형 금계국
금계국 별무늬
생육이 강한 고급 정원용



1.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2.꽃의 별무늬가 흥미로 도로변, 정원용으로 좋다.

화색	노랑	화기	5-10월
용도	양지	초장	40-50cm

상록의 새로운 소재
펜스테온 상록홍엽
하얀색 꽃무리와 붉은잎의 조화



1.광택있는 잎의 질감이 뛰어나다.
2.꽃과 붉은잎 잎은 포인트식물로 좋다.

화색	하양	화기	7-8월
용도	양지	초장	50-60cm

강렬한 붉은잎
홍피
그 어떤꽃보다 아름다운



1.연중 붉은색을 강조, 차별화된 초장가능
2.풍뎡, 작은언덕, 문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
거나 데크주변 등에 잘 어울린다.

화색	무늬종	화기	7-8월
용도	양지	초장	25-30cm

여름과 가을에 개화하는
초롱꽃 '켄트벤'
금강초롱과 비슷한 모양



1.화색이 진하고 화수가 많아 고급경관용소재
2.생육이 기타 초롱꽃에 비해 월등히 강함

화색	보라	화기	6-7월
용도	양지,반음지	초장	40-50cm

동자꽃의 새이름
비단동자
전조에도 강한 화려한 동자



1.일본동자꽃에 비해 생육이 매우 강하다.
2.망치,전조에 강해 관리가 쉽고 화려하다.

화색	진분홍	화기	5-6월
용도	양지	초장	50-60cm

화색이 강렬한 톱풀
톱풀 '비단'
화려한 이미지 연출



1.화기가 강고 생육이 강하다.
2.빨강색의 톱풀 매우 화려하다.

화색	빨강	화기	6-10월
용도	양지	초장	50-70cm

꽃이 크고 다화성인 친족색
꽃잔디 '레드킹'
아름다운 현상 무, 절감이 짧은 강자



1.화색이 선명하고 꽃이 크다.
2.여름철에도 진한 녹색에 비해 월등히 강함

화색	진분홍	화기	4-5월
용도	양지	초장	5cm

꽃이 크고 생육이 강건한
제비꽃
습지의 아름다운 꽃종



1.꽃과 잎이 크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2.수변 및 얇은 물속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화색	보라	화기	5-6월
용도	양지,수변	초장	50-70cm

“Small Garden Project”- ⑥ 정원의 색다른포인트 “리폼화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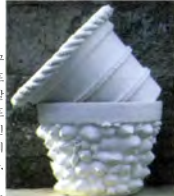
“꽃이나 관목등을 식재할 수 있는 화본은 새로 조성한 정원이나 리모델링한 정원에서 즉각의 효과를 주는데 쓰일 수 있다. 정원에 테라코타 화본 또는 약간 비싼 듯한 세상의 화본, 자연스럽게 이끼가 된 돌이나 석조화본 등을 적당한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고층스카우면서 도시의 작은 테라스나 옥상정원에 원도무박성도 놓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 가지 종류의 작은 화본들을 배치하고, 여러 다양한 식물들을 심는 것은 단조로운 도시 생활에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식물의 선택은, 이것저것 섞어서 하기보다는 작은 공간을 확장시켜 보이거나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절감과 색상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화본은 주변을 잘 살펴보면, 다양한 소재를 찾을 수 있다. 오래된 적석 흙화본, 참나무등을 반으로 자른 화본, 오래된 물조리개, 돌, 심지어 못사는 부엌 싱크대, 나무로 된 사나나 골박스 또는 택배로 오는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해서라도 좋은 특색 있는 화본을 만들 수 있다.”



1. 테라코타 벽걸이화본

- 설치법**
1. 나무판자조각위에 설치할 화본을 대고 연필로 화본끝에서 2.5cm안쪽에 점을 표시한다. 드릴로 화본에 구멍을 뚫는다. 화본을 토분받침용타일에 놓는데 드릴구멍이 타일의 중간중, 화본바닥이 타일끝에서 2.5cm 정도 올라오게끔 놓는 것이 좋다.
 2. 타일과 화본을 볼트와 너트로 잘 연결한다. 타일의 끝에서 5cm 내려온 지점에 구멍을 뚫어서 벽에 걸 수 있는 구멍을 만든다.
 3. 화본바닥의 구멍을 다른 조각들로 잘 막고 뒤비로 채우고 어울리는 식물들을 식재한다. 항상 식물이 적당하게 수분을 유지하도록한다. 빨리자라는 식물들이 작은 화본에 있을 때는 금방 마르는 경향이 있다.

재료
오래된 토분과 토분받침용 타일, 나무판자, 줄자, 연필, 4cm M5볼트, 너트,볼트와셔, 전기드릴, 식벽용5mm드릴날, M5너트용스패너



4. 모조 석조용기

- 설치법**
1. 원하는 모양대로 스트로폼 용기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다.
 - 바닥에 플라스틱 파이프를 꽂아 배수구를 만든다. 스트로폼용 용기 전체에 절할망이

자른 끝을 망 안쪽으로 잘 넣어 넣는다.
2. 시멘트, 모래, 황모래, 피트, 거 등을 잘 혼합하여 물을 부어 걸쭉한 반죽을 만든다. 흙손을 이용하여 2cm 정도 깊이로 바닥과 옆을 잘 바른다. 표면을 부드럽게 마무리한다.
3.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부드러운 브러쉬로 표면느낌을 거칠게 하고, 파이프를 제거한다.
4. 용기에는 고산, 알칼리 식물이나 이끼 등을 키우면 알맞으므로, 따뜻하고 수분이 많은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

재료
폴리스티크화본 또는 토분, 건축용 본드 또는 방수 타일 시멘트, 여러가지 바다조개 또는 로프, 한색 유성 페인트, 페인트용,

2. 엔틱영합석화본

- 설치법**
1. 거친 솔이나 사포등으로 합석용기를 잘 문지르고 뜨거운 물과 세제를 이용하여 닦는다. 잘 말린 뒤 녹색 유성페인트로 칠한다.
 2. 부분 부분 표면에 흙뿌리듯 칠하고 화본 안쪽도 15cm 아래까지 칠하여 말린다.
 3. 엔틱용 약수를 구하여 표면을 여러번 덧칠한다.

재료
사포용 솔, 금속용기, 뜨거운 물과 세제, 25mm 페인트솔, 녹색유성페인트, 약수

음지식물의 이해와 적용 연재⑥



등글래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숲속과 숲가에서 자라는 자생 다년초인 다년초로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음지 식재에 이상적인 식물이다. 무늬등글래

음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푸른리듬 – “무늬 등글래”

(Polygonum odoratum 'variegatum'은 우아하게 아치형으로 뻗은 줄기에 잎이 어긋나기 달려있으며, 반질반질한 작은 초록색잎의 가장자리에는 흰색의 줄무늬가 있고, 편편 타원형 잎은 작은 종모양의 꽃은 줄기 아래부분에 달려 있는데, 싹을 향기가 감돌아 일만정원이나 허브정원에의 반 그늘지역에도 고급스럽게 적용할 수 있다. 꽃은 늦봄에 피기 시작하여 여름 중간까지 관상할 수 있으며 꽃이 진 후에는 검은색 열매를 감상할 수 있다. 그늘을 선호하는 특성과 내한성이 강한 특성으로 큰 나무나 관목 사이 등 빛이 적은 수림하의 바닥 피복이나 건물 등에 의한 그늘지역, 데크 음지, 광량이 부족한 실내조경 등에 식재,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토양조건이 알맞고 주변 식물의 밀도가 적으면 지하경을 통해 빠르게 새 순을 내보내는 경향이 있고, 생장이 왕성하여 식재매체를 조일하게 채우는 지피식물로도 아주 좋다. 가을에는 잎이 모두 지고, 지하경으로 월동을 하며, 물주 기간 주기적으로 예초단편 병충해피해도 적어 관리가 손쉽

다. 자생하던 숲지역의 특성처럼 부엽토가 풍부한 반그늘지역이 생장에 가장 좋다. 뜨겁고 건조한 지역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밭이끼지기 쉬운 음지의 조경재판에 잎의 흰색의 태 두리와 관색 꽃이 조화롭고, 아치형의 줄기가 바람에 흔들리며 음지에 생동감과 리듬감을 불어넣어 준다. 호스트플랜트나 은방울꽃과 분별학적으로 가까운 계열로서 함께 군집을 이루도록 식재하면 매력적인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조경자재의 올바른 이해와 선택 - 연재⑥

“최근 생활환경개선과 도시생태기능의 일환으로 도시녹화가 부각됨에 따라 인공지반 식재층의 필요와 식재의 안정성을 위해 인공토양의 중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기존 무기를 인공토로 대표되는 필라이트가 경량이라는 장점에 불과하고 일부의 생육불량이나 비산, 불투수층의 생성, 식재의 불안정성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어 이를 극복하기위해 유기물 위주의 새로운 형태 인공토양이 최근 주목을 끌고 있다.”

유기물 인공토양의 대표주자 PEAT

PEAT의 종류
WHITE PEAT는 신생대에 생성된 지층으로 한랭한 습지에 이끼가 주로 퇴적된 것으로써 북아메리카와 동유럽의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일부에 주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BLACK PEAT는 중고생대에 생성된 지층으로 한랭한 습지에 주로 갈대과 화본과 관목들이 퇴적된 것으로 아시아대륙과 유럽의 독일 일부에 주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각각의 특장점

WHITE PEAT
WHITE PEAT는 미국등에서 화해 용토로 일찍부터 채취 가공등의 상업화가 이루어져 상품화되어 상대적으로 활용되어 있으며 골프장의 유기물투입과 산토의 원료등으로 많은 일이 쓰이고 있다. 장점은 상품화가 잘 이루어져 물도에 따라 제품이 잘 나누어져 있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 한다. 친수성이 강하나 일정비율이하로 수분이 마르면 약소수 때문에 소수적 성질로 수분의 재흡수가 어렵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습윤제(P.A.M)등을 첨가 한다. 또한 Ph가 3-4정도의 산성을 띄고 있다

토탄(BLACK PEAT) 이야기

토탄(black peat)
일반적으로 토탄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한랭한 습지에서 갈대류가 퇴적되어 석탄과 과정적 식물계의 중간단계로 유기물 함량이 80%내외의 상태를 말한다. 토탄의 가장 큰 장점이자 white peat와의 차이는 부식산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어 지력증진과 식물 뿌리 발육에 매우



효과적이며 N.P.K가 소량이지만 안정된 상태로 함유되어 있는 점이다. 또한 C.E.C가 매우 높아 경양토의 최대의 약점인 토양안정성이 매우 높고 보 비력에서 한효적 지표적 성질을 가진 최근 홍콩 디즈니랜드 조성공사의 토양 유기물 및 개량제로 채택된 것은 이러한 장점이 인정된 것이라 하겠다.

한 장점이 인정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피트를 켈트 형태로 가공한 제품이 개발되어 공사시

(주)한터21 백민정 팀장

작업의 편리성과 토양내서 유기물의 분해를 완화 시키고 토양 배수성을 확보 할 수 있게하는등 용도가 더욱 높고 있다.(그림1)
한편 토탄은 보습력이 매우 높아 일부 화본재배들에 단음으로 사용 할 경우 과습등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 용도에 따라 무기물등을 혼합하여 통기성과 배수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인공토양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용도에 따라 유기물, 무기물 단음으로 쓰기보다는 보완적으로 사용하는게 적절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토탄의 물리 화학적 특성

❖ Organin matter	70~80%
❖ Humic acid	45~50%
❖ pHvalue	4.5~5.5
❖ Nitrogen	1.0~3.0%
❖ Available water	30~50%
❖ Unit volume weight	0.25~0.35kg/L
❖ Factor of porosity	88~97%

표 2. 펄라이트의 물리화학적 특성

물리적 화학적 성질	육성용	배수용
입도	0.2 mm	0.5 ~1.2 mm
표준입경	2.2 mm	3.5 mm
가비중	건조시 0.10~0.12 최대 함수시 0.65	0.12 ~0.14 0.6
전공극률(용량)	82%	78%
조공극률(공기용)	69%(pF 0 ~ 2.0)	50%(pF 0)
흡수율(용량)	82%(pF 0)	78%(pF 0)
유효 수분율	66%(pF 1.5 ~4.2)	36%(pF 1.5~4.2)
비유효 수분율	3%(pF 4.21 ~7.0)	11%(pF 4.21~7.0)
PH	6.5 ~7.0	6.5 ~7.0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파이어스톤
경주용 타이어 전문회사가 만든 친환경 라이너

자연친화적 뛰어난 유연성 탁월한 내구성

가정용, 옥상, 베란다 등의 소형연못 최고의 선택

EPDM 라이너!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은 비결정성고분자물질로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물과 접촉시 내수, 산, 알칼리, 기름, 기름에 해로운 성질이 유출되지 않으며, 고무특유의 냄새가 없어 조류, 물고기, 식물 등에 해가 없고 일조가성 산성토에서 재배할수 있습니다. 특히 육과 자라신에 강하다.

판매처 : 베스트가든 021502-0221

특집

이 달의 식재 추천품목

일반적으로 속근초는 식재후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뒤에 제대로 형태를 갖지 못하는데, 식재되는 식물이 제시기에 줄과를 보기 위해서는 2-3개월 정도 식재가 되어야 한다. 지금 시기에 식재하여야 여름과 가을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품종들을 소개한다.

-면접자주-

삼색조팝, 황금조팝

일반적으로 조팝이라함은 4월경에 하얀꽃무리로 도로변을 수놓는 관목을 연상한다. 하지만 실제로 조팝나무의 종류도 세계적으로 하양, 분홍, 빨강 등 다양한 화색과 키 그리고 형태 등이 서로 다른 많은 품종이 존재하며 조경에 다양하게 이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경용으로 예전부터 일반 조팝나무를 많이 이용해왔고 근래 몇 년사이에는 하천변경미화복합을 하면서 꼬리조팝이 활발하게 쓰이고 일부 고급품종이 적용되는 정도이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꽃에서 소개했던 삼색조팝과 황금조팝은 새로운 관목소재로서 친련일품적인 관목의 사용을 새롭게 변경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삼색조팝은 봄에 황금색잎에 붉은빛을 띄는 새싹이 매우 아름답고 여름의 분홍색 아름다운꽃과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워 시기별로 서로 다른 느낌을 감상할 수 있다. 황금조팝도 봄, 여름동안 시원한 황금색잎을 펼치다가 여름의 분홍색의 꽃과 가을단풍을 아름답게 수 놓는다.

기존의 흔하게 써왔던 관목인 철쭉류는 봄에 꽃이 지고나면 볼 것이 없고 회양목 또한 너무 단순하며 관상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색조팝과 황금조팝을 적용해본다면 회상의 연출이 가능하리라 본다. 공원, 도로변, 골프장 등에 라인을 준디거나 군식을 할 경우 종고 삼색조팝과 황금조팝을 식재되어지는 곳의 여건에 따라 서로 적절히 어울려 배치하여 적용하면 서로간의 일의 색상대비가 되며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꽃나리와 혼식식재를 하게 되면 여름에 조팝사이로 화사한 나리꽃이 만개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더 사로잡을것이다.

생육이 강하여 특별한 관리의 필요하지 않으며 키가 보통 950-600cm 자라는데 약 30cm내외로 전지를 해주면 좋은 모양을 유지하게 된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속에 왕창맞은 새싹이 움추렸던 손을 서서히 내밀며 벌써부터 아름다운 경관을 약속한다.



황금조팝

삼색조팝

가을단풍

속근사루비아



비올라골드세



웨스트블루



레드모시

여름철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빨간꽃이 있다. 어렸을때에는 개꽃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친숙한 사루비아이다. 사루비아라고 하면 우리는 이 바로 빨간꽃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품종이 존재하고 원종이 가능한 속근성 사루비아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꽃이 올해부터 출시한 속근사루비아는 5품종으로 생육이 강건하고 매년 교배할 필요없이 1회 식재로 매년 볼 수 있으며 화단, 도로변, 식물원 등에 군식, 열식하거나 혼합식재시 사용하면 매우 좋다. 품종별로 화색,크기, 화기 등이 서로 달라 구비에 맞게 품종선택이 가능하다.

각 품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루비아 레드모시는 화색은 진보라색으로 매우 고급스러우며 꽃은 삼각형형태로 다복하여 6-8월에 걸쳐 피며 키는 90cm까지 자란다. 사루비아 리틀블루는 품종중 키가 제일 작은 품종으로 약 30cm정도 자라고 꽃은 보라색으로 6-8월에 핀다. 사루비아 비올라골드세는 키는 40cm정도 자라며 꽃이 진보라색으로 다른 품종보다 일찍 피기 시작하여 5월부터 피기 시작한다. 사루비아 화이트는 시원한 흰색꽃을 피며 5월부터 8월까지 장기간 개화하여 키는 50cm 정도 자란다. 사루비아 웨스트블루는 5월부터 9월까지 제일 장기간 개화하는 품종으로 꽃은 진보라색으로 키는 50cm정도 자란다.

속근사루비아 품종만으로도 특색있게 경관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사루비아로 화단을 장식해보는것을 적극 추천해본다.

왜성모나다

모나다는 세계적으로 약 15품종이 있으며 허브로는 빨간꽃이라고도 불리워진 다. 품종별로 화색이 다양하며 꽃의 형태도 이색적이며서도 매우 화려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한다. 거기다 잎의 향기가 매우 뛰어나 꽃과 향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소재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왜성모나다는 키가 50-60cm정도로 알맞게 자라며 역시 잎에 좋은 향기를 풍기고 있다. 꽃은 빨간색에 가까운 진분홍색으로 모나다품종중에서도 제일 화려한 색깔을 자랑한다. 직접 보신 고객들은 그 아름다움에 탄성을 자아낸다.

꽃은 한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개화하며 도로변에 군식, 열식하면 풍으며 울메에도 천안산간 고속도로에 일부 구간에 심겨져 여름이면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혼합식재시에도 여름꽃식물로 다른식물과 잘어울려 심으면 한층 더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벌들이 잘 모이는 식물이기도 하다.



속근코스모스

속근코스모스는 작년에 출시된 이후 최고 인기리에 판매되어지는 품목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연속개화되는 장점이 있다. 꽃의 형태가 코스모스와 유사하여 우리나라의 정서에도 어울리는 품종으로 화색도 다양하여 노랑, 빨강, 분홍, 연분홍, 흰색을 비롯하여 새로이 우리꽃에서 분리해낸 오렌지색 품종이 있다. 오렌지품종은 화색이 매우 고급스럽고 이르면 가을중에 출시 예정이다. 빨강, 분홍속근코스모스는 내한성이 조금 약하여 중부이남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겨울에 피복을 해주어야 한다.

키는 보통 40-50cm정도 자라고 지피속근코스모스의 경우 약20cm정도 자라 화단앞쪽의 장기개화형 식물로 이용하면 좋다.

꽃이 계속해서 피므로 퇴비를 많이하고 꽃이 일시에 지고나면 기존에 꼬투리를 잘라주면 약 15일만에 좋은 꽃을 다시 볼 수 있는데 그시기는 대략 장마전, 초가을이 시작될때 연 2회 정도 컷팅해주면 계속해서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무늬글리세리아

무늬글리세리아는 수변 및 수중은 물론이고 일반 화단에도 잘 어울리는 화본과 식물이다. 잎이 두껍고 아름다운 무늬가 노랗게 들어있으며 키는 60-90cm까지 자라고 지하경의 발달로 번식력이 매우 뛰어나고 강건하다.

하천변이나 골프장의 콘드 주변에 군식하거나 포인트식물로 활용하면 좋고 아름다운 곡선의 무늬와 멋스러운은 일반 공원원의 화단에 적용해도 잘 어울린다. 이 식물은 수심20cm정도 까지는 자연스럽게 지하경을 번며 큰포기를 이룬다.



툼플비단

툼플은 품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잎모양이 툼플처럼 결각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품종이 많이 존재하는데 조경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소재이다. 우리꽃에서도 다양한 혼합색을 자랑하는 파스텔, 하얀색꽃의 화이트캔디, 허브로 아로우라고도 불리는 노랑툼플을 선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툼플 비단은 화색이 강렬하여 주변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도로변이나 화단조성시 이용하면 6월부터 빨강색꽃줄을 감상할 수 있다. 관리만 잘해주면 화기도 길어 꽃이 질때쯤 컷팅을 해주면 다시 계속해서 꽃을 볼 수 있다. 혼합식재시에도 다른 식물과 잘 어울리며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뛰어난 소재이다.



꼬리풀

베로니카로 불리는 꼬리풀류도 다양한 품종이 존재한다. 주로 여름에 꼬리모양의 꽃이 시원하게 주변을 밝힌다. 품종에 따라 그 특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꽃이 선보인 꼬리풀을 살펴보면 꼬리풀 핑크는 연분홍색으로 키가 제일 크고 여름에 개화한다. 꼬리풀 이브는 자주색에 가까운 분홍색으로 6-8월에 피며 초장은 50cm정도이다.

꼬리풀 리틀블루는 보라색으로 키가 30cm정도의 왜성종이며 화기가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는 장기개화종이다. 꼬리풀 블루는 키가 60cm정도 자라고 5월에서 7월까지 개화하여 다른 품종에 비해 한달정도 일찍 개화한다.

꼬리풀은 주변의 다른 여러 가지 식물속에서 포인트 식물로도 잘 어울리고 도로변 등에 군식에도 매우 좋고 일조량이 어느정도 유지되는 반음지에도 적용이 가능한 식물로 용도면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소재이다.



이 계절의 식재 추천 품목



가우라, 분홍구절초, 사포나리아 코트, 무늬금계국, 금계국 왜성사계, 니포피아, 구근다알리아, 디기탈리스, 홍피, 리아트리스, 발레리안, 골드밴드, 속근꽃향유, 역새 그린라이트, 역새 모닝라이트, 무늬역새, 스타치스, 에키나, 왜성아스타, 무늬엔젤리카, 하늘응담, 스텔라원추리, 속근왜성천인국, 초롱꽃 켄델, 초롱꽃 켄델, 개량후룩스 등

농협 : 235100-56-071562
예금주 : 박공영 (우리꽃 대표 및 소식지 발행인)
전화 : (02)6300-2080~1 팩스 : (02)6300-208

한국의 식물원 - 연재②

농업적 경관, 체험, 휴식이 있는 곳 포천뷰식물원

“시원한 바람은 꽃으로 불어와
확 트인 산을 넘어 무지개를 만들었다.”



한국 최초의 농업적 경관 식물원을 포창하는 포천 뷰식물원은 논바닥, 밭이랑이 가져다주는 선의 아름다움에 화려함의 장관을 결합한 식물원이다.

막히지 않고 확 트인 시야와 하늘선이 맞닿은 곳, 푸른 경관이 감탄을 자아내고 여러 가지 체험과 휴식의 공간들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서울에서 중부고속도로를 올라 구리를 지나 계속 직진하면 고속도로 밑 지점에서 47번 국도를 만난다. 4차선으로 확 풀린 47번 국도를 달려 화천교차로에서 내려 일동방향으로 접어들면 산사촌으로 유명한 배상면주가를 지나 포천뷰식물원까지 40분에서 1시간이면 출하다.

입구는 조금 좁지만 뷰식물원으로 들어서면 3,000평에 달하는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입장료(어린이 3,000원, 어른 4,000원)를 내고 식물판매장을 지나면 장터 같은 분위기의 초가집 앞마당



가족과 함께 하면 더욱 즐거운 포천뷰식물원



잠시 앞 언뜻의 물속에 비치는 나의 붉게 타오른 흥안이 비단잉어의



물놀이를 보지 않고는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니다. 잔잔한 연못의 일여와 시간을 가지고.....

양귀비꽃밭의 향긋함을 따라 장단을 맞추다 보면 천재와, 흰색, 보라, 분홍의 꽃창포 활강과 습지의 징검다리라는 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다잡아 준다.

그리고 나타난 향기정원의 온실과 정원엔 감리모든 화와 애기동물원의 아이들 소리가 뒤섞여 눈과 코와 귀가 흥분으로 낮을 열고 만다.

그래도 허브차를 향산하고 애기동물원에 둘러 병아리며 작은 토끼, 송아지, 강아지, 꽃닭, 어린원숭이, 이름표를 새, 뽕종 거리는 작은 오리까지 나와 아이가 놓아 주는 먹이를 주는 대로 잘도 받아먹는다.

다시, 허브정원의 데크 마루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아름다운 향기정원의 꽃길을 따라 능선을 오르면 나타나 는 또 한방의 화려한 감동, 맑고 화려한 꽃다, 백합의 정열적이고 우아한 경관 속으로 빠져든다.

그리고 나타나는 능선 너머엔 또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렇게 놀랄게 없을 것 같다.

능선을 오르자 바위와 꽃들이 어울려진 암석가든이 고 급스럽고 화려하지만 그리 놀랄만하지 않다.

그러나 색동무지개는 나를 다시 한번 쓰러지게 한다. 꽃잔디가 가져다 준 레인보우 속근초가 언제 꽃을 피웠지?

노랑, 보라, 연분홍, 하양, 빨강, 연두, 분홍의 넓고 긴 이랑이 다시 하늘과 닿아 있다.

멀리 계곡에는 7단의 폭포가 하얀 포말로 부서지며 시원함을 소리 낸다.

바람이 불어와 흔들리는 색동 의 무지개는 더욱 헝가리가 나 게 아름답다. 이제 어디로 가 지?

그래도 계곡의 물소리가 나를 부른다. 그리고 그늘이 그림자. 무지개와 계곡으로 난 새길을 올라 정상에 오르니 전채가 한눈에 들어온다. 바람도 시원하다. 가슴이 확 트인다. 뒤로 난 천원 솔길로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에 지난 주한 나를 감싸던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고 없음을 느낄 수 있다. 참 아름답고 소중한 여행을 오랜만에 한 느낌이다.

폭포가 있는 작은 연못가 카페에 둘러 앉은 커피향 잔으로 시간을 정리하고 나오는 길에 허브, 아생와 매장에 둘러 집사람을 위한 작은 선물과 아름다운 작은 화반이 우리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 삼매시 팔짱끼는 마누라와 신난 아이들이 오늘따라 더없이 사랑스럽다.



여름에는 미꾸라지 잡기와 물놀이에 알 수 있고 겨울에는 산 전체를 뒤덮는 흰형색의 고마진구 불꽃축제가 열린다. 가족과 연인을 그리고 주부들의 나들이 코스로 최고의 경관과 체험과 휴식이 있는 곳으로 한번 둘러 보길 추천한다. (다)

포천 뷰식물원
The View Botanic Garden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유동리 441
홍보실 : 031) 534-1136
www.viewgarden.co.kr



엔 큰 숲이 걸렸고 잔칫집 같은 분위기를 만난다.

그리고 풀밭과 수선, 무스카리의 화려한 전디밭이 감탄을 자아낸다. 그리고 울려다 본 산 능선은 울긋불긋한 꽃잔디가 하늘과 닿아 있다. 이렇게 감동적인 넓은 화려함의 경관이 또 어디에 있으랴.

